

씨름 해야 할 대상

어떻게든 에서의 마음을 풀어야 했다. 다급한 야곱이 선물을 고르기 시작한다. 암염소, 숫염소, 암양, 숫양.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수컷도 함께 보낸다. 암소, 황소, 낙타와 나귀는 새끼들까지 함께 보낸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야곱의 피는 멈추지 않는다. 에서에게 보낼 짐승들을 종류대로 나눈다. 선물을 한 번에 주는 것 보다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 번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종들의 입에 말을 넣어준다.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 창세기 32:17-18

선물 공세로 형의 감정을 풀 후에 만나면 혹시라도 나를 받아줄지도 몰라. 이것이 야곱의 생각이었다. 에서에게 선물을 보낸 야곱이 무리 한 가운데서 밤을 보낸다. 야곱이 생각해 낸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밤중에 자리를 옮긴다.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야밤에 강을 건너게 할 만큼 에서가 두려웠다. 물가에서 에서의 습격을 받으면 더 위험하다 생각한 모양이다.

두 아내, 두 여종, 열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 종들, 지난 이십 년간 모은 모든 재산을 먼저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는다. 이십 년 전, 형을 속이고 도망치던 밤, 야곱은 혼자였다. 그리고 지금, 형을 만나기 위해 돌아가는 야곱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 창세기 32:24

이십 년 만에 홀로 남은 야곱, 그때 씨름이 시작된다. 에서가 보낸 자객으로 생각했을까? 상대가 호의적이라는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축복을 받기 전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번역된 단어가 ‘씨름’이지 무슨 룰이 있거나 심판이 있는 스포츠가 아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다툼이다. 야곱은 나름대로 사투를 벌이지만 간단히 제압되었다.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은 하셨지만 그분은 언제든지 야곱을 이길 수 있는 분, 하나님이셨다.

야곱이 씨름해야 했던 대상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갖기 위해 에서와 씨름했고, 재산을 얻기 위해 라반과 씨름했다. 그러나 정작 야곱이 붙잡고 씨름했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축복, 많은 재산들. 그가 누리고 싶은 복은 피를 내고, 속임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며 야곱이 씨름할 대상도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이 씨름을 마친 야곱이 확실히 믿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도 목숨 건졌으니 에서를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 비록 몸은 다쳐서 도망칠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해결되었다.

영똥한테서 힘빼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라. 그래야 해결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